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5. 11. Vol. 19

■ 농정이슈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 등

■ 정책브리핑

2015년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 등

■ 연구지원

2014년 인삼류 수출 동향

■ 현장여론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증장기 발전 방향 등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

-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5.5.), 연내 발효 전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 회 황 산업무역부 장관 정식 서명,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 도입

※ 2007.6. 발효: 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FTA

- **(주요 내용) △협상 대상**...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추가 자유화 (2012년 수입액 기준)**...-(한국) 94.7%(+3%p) ↔ (베트남) 92.4%(+6.1%p)

※ (한국) 1,063개(4.7억 달러) - (베트남) 1,226개(21.2억 달러)

〈농산물 원산지규정〉

• 신선 농수산물(대체로 원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기준) 중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자료 : KBS SBS YTN(2015.5.5.) / 경향신문·국민일보·농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아시아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2015.5.6.)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2015.5.)

□ TPP 주요 동향

- **[TPP 교섭 각료회의 개최 예정, 5.26~28., 필리핀]** 캐서린 노벨리 미 국무부 경제 차관, 외신기자단과의 간담회*(4.30.)에서 **밝혀**, 이번 각료회의 앞두고 **5.14~28. 광에 모여 현안 논의**

※ “TPP가 수년간의 협상 끝에 진전되고 있다. 다만, 각료회의 일정 잡았다고 해서 협상 타결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통해 미국과 일본 몇 가지 남은 이슈에서 합의점 찾았다” 언급

자료 : 문화일보(2015.5.1.) / 연합뉴스(2015.5.2.) / NEWSis(2015.5.4.)

- **[무역협회, TPP 전문가 포럼 개최, 5.8.]** 학계·민간 통상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참석, TPP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 대응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논의된 내용 충분히 검토해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TPP 참여시기와 방법 결정하겠다고 언급

자료 : 국민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5.9.)

☞ 농정이슈

□ 농식품부, 답리작 활성화 추진

- **[농식품부, 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5.8]** 경지이용률과 곡물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향상 도모 위해 **△2015/2016년 28.7만ha(전년대비 22%↑), 2020년까지 37.9만ha(답리작 가능 면적 66만ha의 57.4%) 재배 목표**
 ※ 답리작 면적: (2012) 20.6 → (2015) 23.6 → (2016P) 28.7 → (2020P) 37.9만ha
 - **(답리작 28.7만ha 달성 시 생산량 218.5만 톤*)** 전년대비 전체 곡물자급률 향상(1.0%) 및 식량자급률(조식료 제외) 상승(0.5%), 총 6,700억 원의 농가소득 증가 예상
 ※ 보리 11, 밀 3, 조식료 204.5만 톤
 자료 : news1NEWSis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5.8.) / 농촌여성신문(2015.5.1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답리작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잡는다! - 논 동계작물 재배로 소득 향상(6천 7백억 원) 및 곡물자급률 제고(전년대비 1.0%↑) -」(2015.5.8.)

□ 농식품부, 5월 내 쌀 7.7만 톤 추가 격리

- **[농식품부, 2014년산 쌀 7.7만 톤 추가 격리 5월 내 조속 실시*]** 2014년 쌀 생산량 424만 톤 중 신곡 수요량 400만 톤 초과하는 24만 톤 전부 정부가 매입함에 따라 쌀 시장 안정화 기대
 ※ 정부·새누리당, 당정 협의 개최(4.24.) 쌀값 하락 방지 위해 5월부터 쌀 7.7만 톤 추가 수매한다는 쌀 수급 안정대책 최종 확정
 자료 : KBS·YTN(2015.5.3.) / news1-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5.4.) / 농민신문(2015.5.6.) / 농촌여성신문(2015.5.11.) / 농축유통신문(2015.5.8.)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77천 톤 5월 중 매입 추진」(2015.5.4.)

□ 농지연금 가입 증가

-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2015년 농지연금*** 가입 및 지원액 대폭 증가] △신청:** (2014.4.) 457 → (2015.4.) 576건, **26.0%↑, △가입:** 410 → 515건, **25.6%↑, △총 지원액:** 86 → 121억 원, **40.7%↑, △혜약전수:** 228 → (2015.4.) 203건, **11.0%↓**
 ※ △(2014) 이자율 인하(4 →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 이상) / △(2015)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상향(70 → 80%), 가입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 등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2011~)
 - **(2015년 신규 가입자 월 평균 연금 지원액) 114만 원**, 전년대비 18.7%↑*,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 강화
 ※ (2014년 신규가입자) 959 → (2015년 신규가입자) 1,138천 원

☞ 농정이슈

자료 : YTN(2015.5.3.) / KBS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5.5.4.) / 농촌여성신문(2015.5.11.) / 농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5.8.)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지연금, 부모님 효도선물로 날개 달다” - 금년도 신청 및 가입은 26%, 총 지원액은 41% 증가 -」(2015.5.4.)

□ 농식품부, 폐열재이용시설 대상 선정

- **[농식품부,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4개 지역(당진, 하동, 제주, 곡성) 선정]**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경영비 절감(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위해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에 냉난방시설 지원***
 ※ 2015년 국비 77억 원, 정부보조금 80%, 융자 10%, 자부담 10%
 - **(지원 내용) 시설원예농가 대상 냉난방에너지 공급 위한 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설치비 지원**,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면세유 대비 에너지 비용 70~80% 절감
 자료 : 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5.6.) / 한국농업신문(2015.5.8.)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에 냉난방시설 신규 지원 4개 지역 선정 - 면세유 대비 에너지비용 70~80% 절감 가능 -」(2015.5.6.)

□ 구제역 및 AI 발생 주요 동향

- **[구제역 발생 동향, 5.6. 기준] △총 191건(양성 185, 음성 6), △살처분: 195개 농장 172,734마리**
- **[AI 발생 동향, 5.6. 기준] △총 806건(양성 177, 음성 627, 검사 중 2), △살처분: 216농장 4,909천 수**
 ※ (AI 예방통제센터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예방통제센터 신설, 역학조사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신속·체계적인 역학조사로 수평전파 차단 등 효율적인 방역조치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도 진단능력 평가 실시]** 전국 질병진단기관의 진단 기술 향상과 진단능력 표준화로 신속정확한 진단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도 및 민간 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평가 위해 실시
 ※ (조사기간 및 대상) 2015.3.~4. / 총 53개 기관(시·도 방역기관 43 + 민간 진단기관 10)
 ※ 부적합률: (2013) 6.9 → (2014) 4.2 → (2015) 3.0%
 자료 : NEWSis연합뉴스(2015.5.2.) / 농수축산신문(2015.5.4.) / 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5.5.6.) / 농축유통신문(2015.5.8.)
 참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_「가축질병 진단능력 향상되고 있다」, 「『AI 예방통제센터』 업무 설명회 개최」(2015.5.) / 농식품부 자료_「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상황(05.7.)」(2015.5.7.) 「AI 방역 추진상황(5.7.)」(2015.5.7.)

정책브리핑 2015년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5.7.)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 5.7.
- [주요 내용] 2015년 수출목표 77억 달러, 전년 수출실적(61.8억 달러) 대비 24.6%↑
FTA를 활용한 對중국 수출 확대, 중동·아세안 등 할랄 식품시장 적극 공략
- 〈대중국 수출 확대〉
- [정보조사] 주요 도시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통한 수출 확대 도모
※ 3개 도시(북경·상해·광저우)를 시작(2015.3.~)으로 주요 거점 도시로 확대 추진
- [판로 확대] 온라인·TV홈쇼핑·백화점 등 新 유통채널 확대
- [물류] 청도 물류기지(6월중 개소)를 거점으로 중국 내 7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 한국 농식품 특화 배송망 체계 구축
※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약 통해 시설 이용료 할인, 해당 이용료의 80% 정부 지원
- 〈할랄·아세안 등 신시장 진출 확대〉
- [시장진출] 한식업 내 ‘할랄식품 사업단’(3.12. 출범) 중심으로, 주요 시장별 인증기준 분석·할랄식품 개발 등 추진
- [인증지원]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전문역량 축적, UAE·인니 ‘할랄인증 기관’ 등록 추진
- [할랄생산기반] 할랄 전용 도축장 및 도계장 운영(2016) 검토 등 생산기반 구축
- [홍보·마케팅] 식문화 차이 극복 위한 공격적 홍보·마케팅 추진
- 〈인삼류 수출확대방안〉
- [2015년 수출목표 200백만 달러(전년대비 8.7%↑)] 수출시장 다각화, 비관세장벽 해소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 (수출시장 다각화,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지속 추진) 마케팅 중심의 국제행사 참여 업체 지원 확대, 산자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체계 구축, 중국의 비관세장벽(고려인삼질량표준* 개정, 신자원식품제도**등) 해소 적극 대응
※ 고려인삼수입 시 적용하는 성상(외형) 등을 중국삼 기준에 적용 개정안 마련 중
※ ※ 4~5년근을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식품으로 분류(2012.8.)하였으나, 우리나라 제품 등록 및 수출실적 전무
 - (엔저 등 환율변동성에 대응, 원가절감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검토) 인삼계열화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맞춤형 원료조달 시스템 구축

2015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5.8.]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수립에 앞서, 2015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 중심으로 마련
-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환경보전기능도 제고하기 위해 농업환경지표 개발하여 관리기반 구축
- 친환경단체 중심, 농업환경개선운동 추진
- 지역단위로 수질·토양보전을 적절히 관리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
-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 간 MOU 체결 등 기업-농업인 상생협력 강화,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한 대형 소비자 발굴 지속 추진
-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한 물류여건 개선 및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
- R&D 지원 강화, 주요 수출국(미국, EU, 중국, 일본 등)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가공·체험시설 지원 확대, 유기농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 지원
- 저농약 인증 폐지 대응 주요과수 유기재배 매뉴얼 보급, 직불제 지원 확대
- 〈친환경농식품 신뢰제고〉
- 인증과정 ‘2중-check(민간인증기관+농관원) 시스템’ 구축하고, 상습 인증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확대(1 → 2년)
- 농약사용여부 품질검사 확대 및 유통조사 시 소비자단체 참여 유도
-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2015.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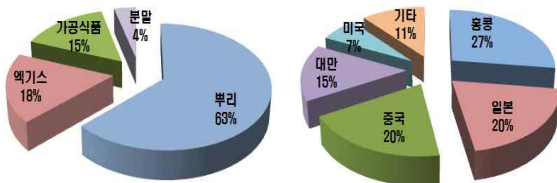
연구지원 2014년 인삼류 수출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5.8.)

총괄

- [관세청, 2014년 인삼류 수출 동향 발표, 5.8.] 인삼류 수출 1억 6,000만 달러(38백 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연평균 7.8%↑)
 - ※ (2012) 123 → (2013) 156 → (2014) 160백만 달러
- (수출 증가 이유) △가격 및 품질경쟁 우위, △의학적 효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중화권* 수출 대부분 차지(61.8%), △중국 및 일본 등에 현지 법인 설립해 유통망 확대
 - ※ 홍콩(27%) 일본(20%), 중국(20%), 대만(15%), 미국(7%) 순
- (국가별 선호 품목) △홍콩, 중국, 대만 등 중화권...‘뿌리’, △일본, 미국...엑기스 및 가공된 식품

2014년 품목별 비중 및 국가별 동향



품목별 수출

- [뿌리] 1억 100만 달러, 전년대비 1.3%↑
 - (수출국) 홍콩(40%) > 중국(28%) > 대만(21%) 순
- [엑기스] 2,900만만 달러, 전년대비 3.4%↑
 - (수출국) 일본(52%) > 미국(20%) > 베트남(6%) 순
- [분말] 600만 달러, 전년대비 11.3%↓
 - (수출국) 일본(40%) > 미국(17%) > 홍콩(9%) 순
- [가공식품] 2,400만 달러, 전년대비 13.3%↑
 - (수출국) 일본(47%) > 미국(12%) > 중국(7%) 순

현장여론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등

자료: KREI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오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4. 1. ~ 4. 30.(총 39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 농촌 주택은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으로 현재는 전원주택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품앗이 등 공동체 형태의 노동력은 임대일꾼, 외국인근로자 활용, 농업기계화로 변화하고 있음. 농업은 먹고살기 위한 생존수단이던 소작농에서부터 임대농, 기업농으로 발전하고 **농촌의 교통발달, 교육 등으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이 적어지고 개인주의, 파벌림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지역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최영호, 충남 부여>
- 농어촌은 산업화와 더불어 청년층 인구유출, 고령화, 부녀화, 농업기계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이중국가제는 직불금 보존 차원의 지원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농업정책은 생산자 중심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자가용 및 스마트폰 사용 증가, 문화생활 하는 등 **도시생활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열악한 소득구조는 여전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구입 시 세제혜택과 지원 확대, 농산물 생산예고제를 실시해 가격을 미리 예측, **소규모 마을의 통합으로 마을 운영비 축소, 지역 대표 농산물을 브랜드화해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배병열, 전남 무안>

- 농촌의 70%에 해당하는 고령인구가 20년 안에 수명을 다한다고 볼 때 정년을 마친 60대 이상의 귀농인구의 유인으로 농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촌에 유입되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은 젊은 층이 유입되느냐 하는 것이 현 귀농정책에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봄. 도시에 밀집해있는 많은 청년층 인구를 분산해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 농촌청차자금 지원 확대,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 청년층 귀농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함. <장석우, 충남 청양>
- 요즘 일반 시중은행이나 다른 정책자금에도 1~2%대 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영농자금 대출은 초창기 80년대 연 14%의 고금리가 3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한 실정임. **영농자금 금리 대폭 인하해 주길** 바람.<이길숙, 경기 안성>
- 농어촌의 옛 모습은 정이 넘치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팔 벗고 돕는 일이 많아 이웃사촌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요즘은 농어촌 안에서도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늘어나 농농갈등이 잦고 있음. 특히 도시에서 귀촌해 생활하는 사람은 본인 생각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로 상의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서, 민원제기 등으로 기준에 거주하는 농가마저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도시민의 이해부족과 갈등이 농어촌 사회로 옮겨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정책이 필요**함.<김진태, 충남 홍성>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어렵게 얻은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해도 높은 생산비,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소득이 거의 없어 농사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또 악순환하는 것이 현실임. 인력부족 대안으로 기계화를 들 수 있지만 사과농사에 필요한 5명의 일꾼을 대신할 리프트기 한 대 가격만 2천만 원, 트랙터 한 대에 4천만 원을 호가해 그마저도 쉽지 않음. **인력부족, 생산비 급등에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농기계 반값보조** 뿐이라고 생각함.<김준섭, 경북 영천>
- 현재 우리 농어촌 사회는 인구감소, 고령화, 과다한 노동력 소요, 이로 인한 질병 증가, 1인가구 증가, 노후대책 미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추세임. 정겨운 인심,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농가를 집단화하고 면사무소의 통폐합, 마을 회관 대형화 및 거점 공간 활용 등 공동체 주거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임충빈, 경기 안성>

☐ 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개선점

- 채소 계약재배 시 가격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인과 갑을 관계가 되어버리는 실정임. 채소가격이 폭등하면 농업인 손해가 많아져 농업인이 배상조건을 내걸고 해약하게 되고 반면, 가격이 폭락하면 상인들이 수확해가지 않고 밭에 내버려둔 농작물 때문에 다른 작목의 파종이 늦어져 농업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인들의 요구조건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상인과 농업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약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채소는 작황이 좋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좋지 못해도 판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없는 형편임. 정부에서 **계약재배 시 일정한 재배량을 조정해주면 수급조절에도 용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는 작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농산물 가격의 손해분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함.<전연수, 경남 의령>
- 현재 상인들과의 개별 계약거래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다 받을 수 없게 되고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않아 후작물 파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산작목에 대해 농업인에게 생산만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 판매를 책임지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계약 이행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계약재배를 추진해야 할 것임.<배병열, 전남 무안>
- 정부나 농협 자체에서 약간의 채소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편임. **계약재배는 채소 파종이전에 사전계약을 통해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재배에 앞서 식부면적 등을 조사해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활용**되면 좋겠음. 계약재배는 상인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실시해 농업인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적절한 수준이 부합되어야 함. 또한 농업인 부주의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은 농가책임으로, 천재지변이나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은 계약업체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가 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좋은 가격으로 계약되어도 출하물량에 따라 수집상들이 수확하지 않고 후기작물 재배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생김. 수집상을 통하지 않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내놓으려면 규격에 맞춰 포장하고 적제, 하역 등 인건비와 차량 운행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면 생산비에 못 미치는 소득은 마찬가지임. **농협에서 올바른 계약재배 방식과 새로운 판로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망함.<연규석, 경기 평택>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중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